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김미은



지난 6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발간한 '문화광주'를 받아보고 꽤 당황스러웠다. 잡지 표지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아니, 왜 광주시장이 여기에?"였다.

에서 퍼내는 잡지라고 말하기는 실로 민망했다. 2010년 1월~9월까지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수많은 문화 행사와 화제를 모았던 예술인 가운데 가장 알고 싶은 게 바로 저였어였을까. 그냥 '과일 총성'이

'인사말' 하지 않는 광주시장

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아마도 이번 잡지 표지가 더 황당하게 느껴졌던 건 요즘 현장에서 강 시장을 보고 느꼈던 감정들이 오버랩됐기 때문일 거다.

관람하며 기립박수도 보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강 시장이 예술인들과 시민 대신 문화 행사의 '주빈'이 된 듯한 인상을 받았다. 정음성극제음악제 리셉션에서는 장황한 인사말이 10여분 이어졌다.

남송을 하는 것이나 모두 시장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주최측이 알아서 한 일일 것이다. 시 주최 행사에서 시장이 인사말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는 시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 여러 이유를 붙여 해축해 버린 전 부천 시장 같은 사람도 있었다. 필자는 강 시장이 '세련된 문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제 사람 챙기기 이제 그만

'제 사람 챙기기'도 떨쳐냈으면 좋겠다. 하반기 광주 문화계는 유례 없는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이 시장을 포함 10~15명을 새로 뽑고 비엔날레 재단도 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다.

〈문화생활부장〉 mekim@kwangju.co.kr

시설

KTX發 '공항 수요 급감' 대책 서둘러야

호남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수요 감소율이 전국 지방공항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김해, 제주공항만이 흑자를 내고, 나머지 11개 지방공항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여수공항은 73억원의 적자를, 무안공항 68억원, 광주공항도 14억2100만원의 적자를 냈다는 것이다.

삼성 금형센터 지역경제 도약 계기 되기를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가 11일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에 들어선 금형센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생활가전과 TV, 컴퓨터, 프린터, LCD 등 삼성전자 제품을 개발, 생산하게 된다.

이 같은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광주가 금형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지역 협력업체와 공유하고, 전남대와 한국폴리텍대학에 금형 교과과정을 운영해 우수 금형인력을 육성, 배출하기 때문이다.

은편칼럼 이상욱. 우리창에 부딪히는 비바람이 괜히 나를 우울하게 하는 가을밤이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과 요란스럽게 울부짖던 매미들 또 사람들로 들끓던 바닷가의 소음도 다 떠나보내고 가을밤은 깊어 가는데, 다시 찾아온 가을이 슬며시 옛 추억에 젖어들게 만들어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

가을 이야기. 오솔길이었다. 우리는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던 겨울 밤 그리고 진달래가 만발하고 온갖 새들이 노래하던 이듬해 봄에도 다정하게 손을 잡고 그 오솔길을 걸으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편상'을 수여 합니다. 은편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신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문응철. 지난 6월 2일에는 8개의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됐고, 연이어 우리 지역에서는 7·28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오는 27일에는 서구청장 재선거가 예정돼 있다.

재·보궐선거의 역할. 행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영향력이 그에 못지않을 진대 선거비용 10억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면 피해와 낭비가 아니라 소득과 이윤이 발생하는 재선거가 될 것이다.

정신질환자 선진국형 재활체계 하루빨리 구축해야. 급속한 사회변화로 정신질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들을 치료해줄 정신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당당히 이런 충격적인 살인,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無等鼓. 힌두교의 최고신인 비슈누와 브라마가 '둘 중에 누가 더 존엄한지'를 놓고 논쟁을 시작했다. 두 신이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을 때 그를 앞에 수많은 우주를 모두 태워버리는 거대한 불기둥 하나가 나타났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